

아파트 신규분양 시장 기지개?

진월 주공 청약률 1.6대1... 모처럼 훈풍 민간 분양률은 20%대 그쳐 양극화 뚜렷

광주·전남 아파트 분양시장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광주 진월 주공이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는 등 주공 아파트엔 훈풍이 일고 있는 반면, 민간 아파트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 감소도 더디기만 하다.

주공 광주진남본부는 29일 "광주시 남구 노대동 진월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40평형(111.9㎡) 이상 중대형 아파트 404가구의 청약접수를 받은 결과, 모두 635명이 신청해 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같은 청약이 최종적으로 계약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청약률이 '제로'인 아파트도 속출하는 요즘 중·대형 규모만 구성된 단지가 당첨 경쟁까지 벌이게 된 것은 이례적이다.

주공측은 "기반시설이 갖춰진 진월택지개발지구 안에 조성되고 단지를 둘러싼 산책로와 자연호수(노대제), 인근에 조성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등 쾌적한 입지 여건과 교통 등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 것 같

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민간 아파트 분양 시장은 아직 냉랭하다. 올 들어 공급된 광주·전남 지역 민간 건설사들의 신규 아파트 분양률은 20% 선에 그치고 있다. 상당수 건설사들이 미분양 소진을 위해 분양가 인하, 잔금 유예, 이자 대납 등 과격적 할인 혜택 등을 내놓고 있는데도 효과가 미미하다.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는 수완지구만 보더라도 '약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지난 4월 1천982가구에서 5월 2천255가구로 오히려 늘었다.

국토부가 지난달 공개한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에서도 광주는 수도권과 달리, 지난 3월 2천588건의 아파트 거래가 이뤄진 뒤 ▲4월 2천404건 ▲5월 2천317건 등 감소 추세다.

이 때문에 주공발 청약 훈풍은 찬란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지역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호재'는 없고, 전체 일로인 실물 경기 또한 발목을 잡고 있다.



대한주택공사 광주진남본부가 최근 문을 연 광주시 남구 노대동 진월택지개발지구 내 휴먼시아 아파트 모델하우스. 전체 404가구를 분양하는데 모두 635명이 신청해 평균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관계자는 "주공의 신규 분양이 예상 외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전체 일로에 있는 지역 부동산 시장의



권 대형 건설사 위주로 진행되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 진행될 우려가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 건설경기 및 경제 활성화라는 취

"4대강 살리기 지역업체 참여 확대"

최상준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장

최상준(71) 신임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장은 29일 "건설사의 매출과 수익의 밀집인 수주 물량 확대와 입찰제도 개선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광주시 모 예상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영산강 살리기 사업 등 정부의 국책 사업이 수도

활성화로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면서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음기자 dok2000@kwangju.co.kr

채용 못한 '빈 일자리' 6만8천개

노동부, 1분기 5인 이상 사업체 고용동향 조사

기업이 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대상자를 찾았지만 결국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이 올해 1분기에만 6만8천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상용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체 3만1천665개를 표본으로 삼아 '사업체 고용동향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미충원 인원은 기업이 정상적 경영과 생산을 위해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으로, 적극적인 구인활동을 했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빈 일자리'다.

이들 사업체의 1분기 구인인원은 40만9천명으로 작년 1분기 62만5천명에 비해 34.5%(21만6천명) 감소했고, 채용인원은 34만2천명으로 작년 동기 51만2천명보다 33.3%(17만1천명) 줄었다.

전체 구인 인원에 대한 미충원 인원의 비율인 미충원율은 16.7%를 기록해 작년 동기 18.2%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

사업체 규모별 미충원 인원은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인 6만명으로 작년 동기(10만6천명)보다 43.3% 감소했

지만, 300인 이상 사업체는 8천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400명 늘었다.

산업별 미충원 인원은 제조업이 2만4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수업(7천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회지원서비스업(6천명) 등이 뒤를 이었다.

미충원 사유를 설문한 결과, '취업지원자가 없음'(25.1%)과 '직무능력을 갖춘 지원자 없음'(23%)이 전체의 절반 정도로 주를 이뤘다.

300인 미만 사업체에는 취업 지원자가 없다는 답변과 직무능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다는 답변이 각각 26.5%와 21.9%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100대 기업 하반기 7,700명 뽑는다

취업포털 커리어 조사

100대 기업이 올 하반기에 대졸 신입사원으로 약 7천700명을 채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지난 24~26일 100대 기업(매출액 기준)을 대상으로 조사해 29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87개 업체 중 50.6%(44개사)는 하반기에 대졸 신입 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가 밝힌 채용 인력은 총 6천여 명이다.

아직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한 28개 기업(32.2%)이 예년 수준에서 채용한다고 가정하면 올 하반기의 100대 기업 채용규모는 7천70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커리어 측은 분석했다.

이는 100대 기업이 작년 하반기

에 채용한 실제 인원(8천504명)보다 9.7%가량 감소한 것이다.

커리어 측은 지난 3월 조사에서 올해 채용규모가 작년보다 14.1%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던 점을 고려하면 채용 시장이 앞으로 다소나마 호전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직자들은 하반기의 채용시장 경기를 여전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 22일부터 내놓은 구직자 7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하반기의 취업 전망이 상반기보다 비관적이거나 더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3.5%(544명)에 달했다. 반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자는 17.0%(126명)에 그쳤다.

/연합뉴스

주 40시간제 조기 도입 근로자 지원금 더 준다

노동부는 근로자가 20명 미만인 사업장 가운데 주40시간제를 일찍 도입하는 곳에 지원금을 높이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및 '지급제의 근로자 고시'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각각 다음달과 내년부터 시행한다.

주40시간제를 조기 도입하는 사업장은 다음달부터 새로 채용한 근로자 1인에 대해 분기별로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240만원을 받게 된다. 현재 지원금은 180만원이다.

내년부터는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지원 범위도 현재 2003년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기업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이상이 된 기업으로 확대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자리 나누기를 확산하는 이중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귀 건강을 지키고, 청취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입니다.

국제보청기

www.kitf.com

본점: 광주(061)227-9940
수원점: (061)752-9980
대구점: (061)262-9200
충청점: (062)227-9970
익산점: (063)851-2422

웹기반 JAVA 개발전문가 교육생모집

2009.08.10 ~ 2010.02.09

교육비 전액 무료 지원

개강 Start! 8월 10일

계좌입금 1인당 50만원 지원

중앙IT직업전문학교

2009 서울대 12명 합격 광주학생기 미용 브랜드

▶ 13년의 역사와 전통
▶ 중·고·고급까지
▶ 국·영·수 특과전문

국민익원 061-441-1111

국·영·수 국어, 독서논술, 특목고
중·고등 수리영역
중·고등 영구영역
고등부 언어영역

국민익원 061-441-1111

명품아울렛-럭시티

30여만평부지에 50여개 브랜드 규모가 세아 아울렛

명품아울렛-럭시티

명품아울렛(주)럭시티

입점문의: 061-712-0000